



[해설]
삼성·LG
애플 텃밭 日시장
재공략 나선다
03



코스피 2081.85 (0.00)	→	코스닥 628.10 (0.00)
금리 (국고체 3년) 1.43 (+0.01)	↑	환율 (원·달러) 1189.60 (-0.60) (6일)

간절없는 역성장 시대 '감축 또 감축' 비상경영

경제이슈! 2019 & 2020

(2) 산업계 침체 장기화

국내 완성차업계 비상경영 돌입
구조조정에 희망퇴직 신청 잇따라
삼성·LG전자, 고강도 인력 재배치
한화·두산, 실적악화에 면세점 정리

"한국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반등 가능할 것이다지만 산업환경은 불리할 것이다(S&P 전망)."

최근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텠더드 앤드푸어스(S&P)는 한국은 정부의 정책 완화태세로 올해 1.9%, 내년에는 2.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제성장을 회복은 더디고 내년 산업환경은 전반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일까.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조르며 병하기를 맞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업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근로자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올해 중순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한 비상경영 체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유통 등 국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시장 침체 장기화와 노사 갈등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며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일찌감치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한국지엠은 올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로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560명 이상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생산절벽 우려와 작업량 축소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희망퇴직을 진행하며 인력감축에 돌입했다. 40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등 올해 중순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르노삼성은 위탁생산 하던 낫산 '로그'의 계약 종료로 생산량이 줄면서 최대 4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

을 실시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 전자도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대책에 나선 상태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부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소재한 삼성전자 사업장을 돌며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전자·부품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소집해 비상경영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개발을 중단하고 프로젝트 담당 부서도 해체하면서 개발인력 3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도 준비하고 있다. 또 중국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 깊어지자 현지 조직 개편도 준비중이다.

LG전자는 생존을 위해 고강도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수익 개선을 위해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분위기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MC사업본부는 3분기 기준 3195명으로, 지난 2분기 3440명에서 245명 줄어들었다. 1분기 만에 큰 폭의 인력 감축을 진행한 것이다.

LG전자의 핵심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LG디스플레이는 주력 생산제품을 LCD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임직원 2500여명을 최근 감원했다.

국내 20대 기업도 위기를 감지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발빠르게 사업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와 두산은 중국 개별 관광객 감소와 출혈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자 면세점 사업을 정리했다. 면세점 사업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지만 사드 사태 이후 쳐지가 180도 바뀌었다. 4년 만에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뗀 두산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

두산중공업 공장

/ 각사

'越 국민기업' 삼성, 현지협력사 적극 육성

'2019 백두포럼 인 베트남'

삼성전자, 진출 성공사례 발표
현지 채용인력 14.5만명 달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현지 부품 협력사 육성을 적극 지원하며 베트남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5년 당시 호치민에서 판매법인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다. 지금은 베트남 총 수출액의 24.5%(201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지 채용 인력도 전자, 디스플레이 부문 등에 걸쳐 총 14만5000명에 달하며 '베트남 국민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백두포럼 인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는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하면서 정기 소싱전, 협력사 컨설팅, 컨설팅 육성, 금형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현지 부품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베트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성공사례 발표자로 나선 삼성



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성근 상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2개 로컬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통해 이들이 우리의 서플라이체인에 들어오거나 다른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면서 "이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 현지기업들은 품질, 물류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30~40% 가량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 인력이 투입돼 3개월 가량 현장지도를 하는 컨설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 컨설팅트 양성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컨설팅트 양성사업'을 통해 2년간 207명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우수한 28명은 '마스터 컨설팅트'가 되 현지의 기술지도 전도사로 성장했다. 삼성은 내년에도 32명의 마스터 컨설팅트를 추가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부품산업의 핵심인 금형전문가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3면에 계속〉

/하노이(베트남)=김승호 기자 bada@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최장기 상승

올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각종 규제에도 거칠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단위 기준의 최장기 상승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8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1.82% 상승했다.

/연합뉴스

"바이오·드론 등 4개 신산업 '3대 규제'에 고사"

〈대못규제·중복규제·소극규제〉

대한상의, '규제트리' 보고서

국내 신기술·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서영경)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 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

해서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 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했더니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